
한국영화 주요 배우·감독 네트워크의 관객동원 안정성에 관한 연구 : 1998-2007 영화를 중심으로

Korean Leading Actors & Directors Network Power Analysis
for Audience Stability 1998-2007

류설리, 유승호
강원대 영상문화학과

Seol-Ri Ryu(snowri@naver.com), Seoung-Ho Ryu(shryu@kangwon.ac.kr)

요약

본 연구는 한국영화산업 안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감독'과 '배우' 중 안정적인 관객 동원력을 가진 영화인들을 선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하는 감독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98년에서 2007년까지 10년간 상영되어진 한국영화 약 700여개 작품 중 각각의 년도마다 상위 20위 안에 2번 이상 이름을 올린, 가장 안정적인 스타파워를 가진 '스타급 감독과 주연 배우'를 선출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UCINET 사회 연결망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양한 중앙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감독 50인, 배우 103인을 선출되었다. 그 중 '김상진' 감독이 장기간 가장 안정적인 관객동원력과 네트워크 관리능력을 성공적으로 결합하면서, 결과적으로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스타'로서 존재하였다.

■ 중심어 : | 스타 | 관객동원안정성 | 중앙성 분석 | 사회연결망 분석 | 한국영화 |

Abstract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elected korean leading actors & directors who have stable mobility power for audience and social networking. We elected 153 most reliable Korea actors and directors of stardom" (50 directors, 103 actors); they have to put on the name in the 20 high ranks, and more than twice from the total amount of Korean audience about showing 700 movies by 1998-2007. And then we analyze out 'who might be centre in social networking and social networking between actor and director,' through 'Centrality Analysis' using the "UCINET" social networking analysis program Finally, we know 'Kim sang-jin director' is 'key men' and 'star' who reduced uncertainty definitely: For a long time, he combines most stable audience power with broad network successfully.

■ keyword : | Star | Stable Audience Power | Centrality Analysis | Social Networking Analysis | Korean Movies |

1. 서론

1. 문제 제기 및 기존 문헌 검토

한국전쟁 직후 폐허와 빈곤 속에서 한국영화는 암울

한 사회적 분위기와는 달리 영화사상 가장 값진 진흥기를 맞이하게 된다. 1955년 당시 15편에 불과하던 제작편수는, 59년에 이르면서 한국영화사상 최초로 100여편을 돌파하여 찬란한 '황금기'를 맞이하였다. 이는 영

접수번호 : #090319-002

접수일자 : 2009년 03월 19일

심사완료일 : 2009년 04월 21일

교신저자 : 유승호, e-mail : shryu@kangwon.ac.kr

화가 당시 전쟁으로 인한 이산의 고통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작은 탈출구이자 위안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영화산업은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또 다른 변화를 맞게 되는데, 20세기 후반 TV가 대중들에게 보급되면서 극장 관객이 급속하게 줄어든 것이었다. 즉 영화는 대중들에게 유일한 볼거리가 아닌, 많은 볼거리 중 하나로서 존재하게 되면서 첫 번째 위기를 맞게 되었다. 더불어 21세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계속되는 엄청난 스케일의 할리우드 영화의 물량공세와 스크린 쿼터제 축소, 그리고 인터넷 보급으로 인한 무분별한 영화 불법 다운로드 등 거대한 변화와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영화는 한 나라의 가치 체계와 정신뿐만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문화기호를 담아내는 문화생산물이기 때문에 시대와 장소의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필연적으로 불확실(Uncertainty)성을 갖게 된다. 이는 곧 무한한 가변조건(Infinite Variance)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이에 따라 현대 사회의 경쟁적 상품시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는, 과거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요 성을 인정받은 스타(Star)를 생산하고 수용하고자 하는 이해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곧 스타시스템(Star system)[1]을 탄생 시키게 되었다. 즉 문화산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Nobody knows principle"[2]의 법칙 상황에서 스타는 높은 제작비에 비례하여 그 위험도를 분산시키는 '상품'으로서 존재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19세기 후반 유럽과 미국에서 연극과 영화의 기업화를 시작으로 제도화되었으며, 출판, 광고, 스포츠 등과 같은 전반적 문화 영역 뿐만 아니라 정계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이처럼 치열한 경쟁과 많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대중문화시장에서 '보증수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스타의 중요성은 커져갔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생겨나고 없어져가는 많은 스타들 중에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진정한 영향력'을 가진 이를 판가름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소비자의 취향에 대한 정보가 완벽하게 주어지고 성공할 작품의 특징을 안다고 해도 그런 품질의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생산요소들(감독, 배우, 기타 제작진, 작가 등)이 어떤 것이 될지 미리 알

수 없으며, 어떤 감독과 어떤 배우가 어떤 작가의 작품과 결합되어야 할지 미리 정확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3].

스타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로서 먼저, 할리우드 영화의 극장수입에서 결정적인 요소로서 작용하는 스타의 출연여부를 설명한 치숍(Chisholm Darlene C)은 1959년에서 1989년 까지 미국 상위 20개 영화에 출연한 톰 크루즈(Tom Cruise), 톰 행크스(Tom Hanks), 브루스 윌리스(Bruce Willis) 등 배우들의 영향력 및 수익구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난 20년간 성공을 거둔 상위권 영화들의 성공이 배우들의 경력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4]. 또한 월레스(W. T. Wallace)를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개별 영화 스타들의 영향력을 측정되었는데, 그 중 스타는 영화수입의 약 15%를 설명하였다[5]. 국내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김휴종이 실증적인 한국영화스타의 스타파워분석을 논의하였는데, 1988년에서 1995년까지의 최민수, 최진실, 손창민 등과 같은 그 당시 한국영화계를 이끌었던 한국 영화 스타 배우들 중 28명을 선출하고 이들의 스타파워 정도와 변화도를 측정 하였다[6]. 앞서 언급한 연구들은 대부분 8-90년대 초반의 할리우드와 한국을 배경으로 연구된 것으로, 당시 스타에 가치에 대한 실증적 연구로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10 여 년이 지난 현재, 세계 영화 산업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기존 스타급 배우들 또한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스타파워에 대한 가장 최근의 동향 파악 및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특히 최근의 연구는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영화산업 내 인적네트워크가 스타파워와 직결된다는 논의들이 활발하다. 패짓과 안셀(Padgett & Ansell)[7]은 배우들에게 아이덴티티의 형성을 제한시키게 되면 연기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스타로써 성장할 수 없다는 논의에 대해, 주커먼(Zuckerman)[8]은 스타는 네트워크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으로 반박하였다. 개인의 아이덴티티가 문제가 되어 활동의 자유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다면적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국내의 경우 이러한 네트워크에 근거한 스타 파워분석은 아직 시행된 적이 없다. 대표적인 영화 잡

지 ‘씨네21’에서는 매년 ‘한국영화산업파워 50’을 실시하고 있긴 하다.

표 1. ‘2000-2007년 한국영화산업파워 50’ 중 주요 영화감독 및 배우들의 영향력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송강호	9	33	14	6	10	19	14	
안성기	17	18	32	47		40	27	32
장동건	23	12	27	17	44	27		
총 62 인/ 평균 8명 / 총 평균 순위 26위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강우석	3	2	2	1	1	1	1	1
봉준호	5	17	17	13	41			
박찬욱	7	5	5	8	36	32	43	
총 86 인 / 평균 11명 / 총 평균 순위 24위								

영화 관련 인사들의 설문을 토대로 주요 영화인의 영화산업 기여도 및 영향력과 또한 영화계 안팎의 동향을 종합하고, 총체적인 영향력을 평가한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활동에 근거, 앞으로의 가능성을 비중 있게 반영하고 있다[9]. 씨네21은 지난 2000년에서 2007년까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감독 24인과 배우 20인을 선출하였다. 위 [표 1]은 그 중 상위권에 랭크된 주요 영화인들만 뽑은 것이다. 이들은 지난 8년간 148번 차트에 이름을 올렸는데, 매년 평균적으로 감독은 11명, 배우는 8명꼴로 24-26위안에 지정되었다. 이는 전체 4%내외를 차지하면서 한국영화산업에서 감독과 배우들의 영향력이 수적으로는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우석’ 감독의 경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 1위 자리를 고수하였는데, 이는 감독뿐만 아니라 제작자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배우 ‘송강호’와 ‘안성기’ 역시 각각 2000년과 2003년을 제외하면 약 7년 동안 순위권에 안정적으로 자리하였는데, 이는 티켓파워 뿐 만 아닌 연기력에 대한 단단한 신뢰 때문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매년 ‘한국영화산업파워 50’를 선정함으로써 그 해의 영화산업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를 제공하였으나, 이는 객관적 수치가 아닌 주관적 설문을 바탕으로 함으로써 실질적인 한국 영화 감독과 배우들의 스타파워 즉 관객 동원력 안정성을 예

측하기에는 힘들다.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연구문제 1) 스타급 감독과 배우들 중 가장 안정적으로 관객동원을 한 영화인은 누구인가?

연구문제 2) 영화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스타급 감독과 주연급 배우들은 어떠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최근의 한국영화산업 안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감독’과 ‘배우’ 중 진정한 스타파워 즉 가장 ‘안정적인 관객동원 능력’을 가진 일군의 영화인들을 선별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선정된 스타들의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물론 여기서 염두에 둘 점은 감독과 배우가 문화산업 내에서 개별적으로 스타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할리우드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감독과 제작·프로듀서 간 구분이 대부분 모호하며, 여전히 감독 배우 간 인맥과 인지도가 동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독’과 ‘배우’의 네트워크로 연구대상을 제한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현재 한국영화산업의 스타급 감독 및 배우들의 관객동원안정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데이터인 “홍행성”을 주요변수로 두었다. 이를 기준으로 스타급 감독 및 배우를 선정하였다. 또한 선출된 영화인들을 바탕으로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 SNA)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영화 제작 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시도하였다. 여기서 ‘모집단의 경계’는, 먼저 효과적인 분석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서 국내에서 제작 및 상영되는 모든 영화를 수집한 『한국영화연감』을 참고하였다. 1998년에서 2007년까지 10년간의 한국영화 약 700여개의 작품 중 박스오피스 상위 20위안의 작품을 연출한 감독과 주연급으로 출연한 배우들을 바탕으로, 이 중 두 개 이상의 작품을 박스오피스 상위 20

위 안에 올리면서 안정적으로 관객 동원 능력을 갖춘 '스타 감독 및 스타 배우'를 분석대상으로 제한하였다.

II. 본론

1. 현황 추이 분석

앞서 언급 한 것과 같이 1998년에서 2007년까지 10년간 상영되어진 한국영화 약 700여개 작품 중 각각의 년도마다 상위 20위 안에 2번 이상 이름을 올리고, 안정적으로 관객동원능력을 한 '스타급 감독과 주연 배우'를 선출한 결과 감독 50인(남자 49인, 여자 1인), 배우 103인(남자 56인, 여자 47인)을 선정하였다.

표 2. 한국 영화 산업의 스타 감독 및 배우 153인

스타급 감독 50인	스타급 배우 103인	
	남자 배우 56인	여자 배우 47인
김상진, 강우석, 광경택, 김지운, 송해성, 이준익, 허진호, 양윤호, 김성수, 박찬욱, 이창동, 임권택, 광재용, 윤제균, 유 하, 장규성, 정용기, 김유진, 박광춘, 이정향, 이재용, 임상수, 한지승, 장현수, 김태균, 강제규, 장윤현, 심형래, 장 진, 민규동, 박재현, 안병기, 정초신, 장문일, 김대승, 오기환, 전운수, 정홍순, 이시명, 이 한, 김현석, 김동원, 박영훈, 봉준호, 김용화, 류승완, 허인무, 최동훈, 박진표, 변 혁	안성기, 임창정, 설경구, 이정재, 송강호, 최민식, 장동건, 정진영, 유지태, 차승원, 황정민, 한석규, 신현준, 정우성, 이병헌, 정준호, 류승범, 이성재, 유오성, 신하균, 조승우, 정재영, 박신양, 박종훈, 주진모, 이범수, 김수로, 권상우, 문성근, 최민수, 김상중, 차태현, 장 혁, 원 빈, 정운택, 이정진, 김성경, 김주혁, 백윤식, 박해일, 박용우, 안재욱, 김보성, 차인표, 강성진, 김래원, 정용인, 감우성, 임원희, 양동근, 조인성, 김갑수, 이문식, 공 유, 이준기, 정경호	전도연, 이미연, 김혜수, 고소영, 하지원, 이은주, 엄정화, 손예진, 심은하, 진희경, 김희선, 신은경, 이영애, 문소리, 김선아, 이미숙, 최지우, 송윤아, 김윤진, 김하늘, 전지현, 신민아, 김정은, 임수정, 문근영, 김수미, 김귀리, 나문희, 심혜진, 최강희, 최진실, 박진희, 김민선, 장진영, 이지현, 배두나, 성현아, 송지효, 이나영, 강혜정, 염정아, 김미숙, 김원희, 서영희, 윤진서, 이요원, 김아중

위의 스타급 감독들은 10여 년 동안 평균 약 2.52개, 그리고 총 126개의 많은 관객을 동원한 작품들을 연출했으며, 스타급 배우는 평균 약 3.79개, 총 391개의 작품에 주연 급으로 출연 하였다. 그리고 이 중 10년 동안

가장 자주 상위 20위 안에 작품을 올린 감독과 배우들의 순위를 선정한 결과, 아래 [표 2]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정렬 기준은 1. 성공률 2. 성공 작품 수 3. 총 작품 수 4. 평균 관객 수 4. 전체 수용 관객 수, 이는 성공률 및 성공 작품 수를 먼저 1순위로 하면서 - 우연과 행운에 의한 단 한두 개의 빅 히트 한 작품으로 인하여 많은 관객을 동원 한 감독 혹은 배우보다는 - 10년 동안 여러 개의 작품을 통해 꾸준히 많은 관객을 수용하고,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차지한 안정적인 관객동원 능력을 가진 영화인을 선출하였다.

표 3. 한국 영화 산업 스타급 감독 및 배우 20

순위	감독	성공 작품수	총 작품 수	성공률	전체수용 관객 수	평균 관객 동원 수
1	김상진	6	6	100%	4,972,039	828,673
2	강우석	5	5	100%	6,817,398	1,363,480
3	광경택	5	5	100%	5,448,949	1,089,790
4	이준익	4	4	100%	5,762,316	1,440,579
5	김지운	4	4	100%	2,614,821	653,705
6	송해성	4	4	100%	1,672,891	418,223
7	광재용	3	3	100%	2,959,420	986,473
8	유하	3	3	100%	2,080,323	693,441
9	김성수	3	3	100%	1,831,529	610,510
10	양윤호	3	3	100%	1,671,226	557,075
11	장규성	3	3	100%	1,532,703	510,901
12	이창동	3	3	100%	1,388,878	462,959
13	강제규	2	2	100%	5,957,962	2,978,981
14	최동훈	2	2	100%	2,867,956	1,433,978
15	심형래	2	2	100%	2,598,438	1,299,219
16	정홍순	2	2	100%	2,133,350	1,066,675
17	이정향	2	2	100%	1,989,415	994,708
18	김용화	2	2	100%	1,917,614	958,807
19	김동원	2	2	100%	1,914,334	957,167
20	이시명	2	2	100%	1,326,625	663,313

순위	배우	성공 작품수	총 작품 수	성공률	전체수용 관객 수	평균 관객 동원 수
1	이영애	4	4	100%	4,745,055	1,186,264
2	장동건	7	8	88%	9,414,637	1,176,830
3	최민식	7	8	88%	4,931,848	616,481
4	이병헌	6	7	86%	4,435,365	633,624
5	류승범	6	7	86%	2,399,054	342,722
6	손예진	5	6	83%	3,721,818	620,303
7	정진영	8	10	80%	8,404,029	840,403

8	권상우	4	5	80%	3,748,246	749,649
9	심은하	4	5	80%	1,779,746	355,949
10	김희선	4	5	80%	1,322,122	264,424
11	진희경	4	5	80%	635,654	127,131
12	전도연	7	9	78%	5,081,312	564,590
13	안성기	12	16	75%	9,931,801	620,738
14	송강호	8	11	73%	11,750,120	1,068,193
15	이정재	8	11	73%	4,454,702	404,973
16	설경구	10	14	71%	10,093,206	720,943
17	임창정	10	14	71%	6,163,443	440,246
18	조승우	5	7	71%	4,750,947	678,707
19	고소영	5	7	71%	1,301,268	185,895
20	황정민	7	10	70%	5,382,871	538,287

* 전체 수용 관객 동원 수는 각 작품의 개봉일자 기준으로 서울 관객 동원 수이며, 다큐멘터리·단편영화·미니버스 영화 제외.
 * 성공 작품 수는 스타급 감독과 배우가 1998년 ~ 2007년 도까지 각 해 마다 상위 20위 안에 든 작품들의 수.

먼저 감독과 배우의 전체 수용 관객 수, 평균 관객 동원 수, 성공 작품 수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0.750668의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의성 검정 결과 유의 수준 0.01에서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가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50인의 스타 감독 중에서 김상진, 강우석, 광경택 감독의 순으로 가장 안정적인 관객동원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상진 감독이 강우석, 광경택, 이준익 감독보다는 적은 평균 관객수를 수용하였지만,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은 6작품을 연출하면서 약 80 만 명의 안정적인 동원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주로 방학파 명절 연휴를 기점으로 다양한 세대 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코미디’ 장르를 선택하면서도, ‘유지태’, ‘유오성’, ‘강성진’, ‘이성재’, ‘차승원’, ‘설경구’, ‘김보성’, ‘나문희’ 등 스타급 배우에 해당하는 이를 출연시키면서 자신의 관객동원능력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켰다.

표 4. '김상진' 감독의 작품 별 특징

영화	투캅스3	주유소..	신라의 달밤	광복절 특사	귀신이 산다	권순분..
등급	18세	18세	15세	15세	12세	15세
장르	액션, 코미디	코미디	코미디	코미디	코미디	코미디
기타	강우석 (기획,제작)	-	강우석 (기획)	강우석 (기획)	강우석 (기획)	강우석 (기획)

또한 특징적으로 강한 스타파워를 가진 감독이자 한국영화산업 내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제작자로서 ‘강우석’ 감독과의 연결성이 초기 작품부터 매우 밀접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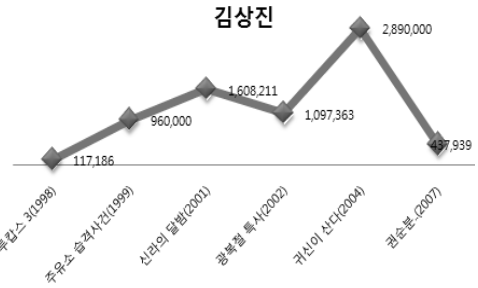


그림 1. 가장 안정적인 관객동원력을 가진 감독 '김상진'의 작품별 관객 동원 수

한편 배우로서 ‘이영애’와 ‘장동건’이 가장 안정적인 스타파워를 기록하였다. 먼저 이영애는 공동경비구역 JSA(2000), 선물(2001), 봄날은 간다(2001), 친절한 남자씨(2005)와 같은 4개의 작품을 거치면서 4작품 모두 안정적인 관객 동원 능력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평균 관객 수 또한 118만명을 넘으면서 103인의 스타급 배우 중 가장 뛰어난 스타파워를 나타냈다. 그녀 또한 ‘박찬욱’, ‘허준호’ 그리고 ‘송강호’, ‘이병헌’, ‘신하균’, ‘이정재’, ‘유지태’, ‘최민식’ 등 스타급 감독 및 배우들과의 밀접한 연결을 통하여 두드러진 결과를 보여 주게 된다.

표 5. 배우 '이영애'의 작품 별 특징

영화	공동경비구역	선물	봄날은 간다	친절한 남자씨
등급	15세	15세	15세	18세
장르	드라마	멜로	멜로	스릴러
감독	박찬욱	오기환	허준호	박찬욱
출연 배우	송강호, 이병헌, 김태우, 신하균	이정재	유지	최민식

한편 가장 높은 스타파워를 가진 남자 배우로서 장동건이 선정되었다. 그는 총 8개 작품에 주연급으로 출연하며 그 중 7개의 작품을 성공시키며 작품 당 약 117만 명의 높은 평균 관객 동원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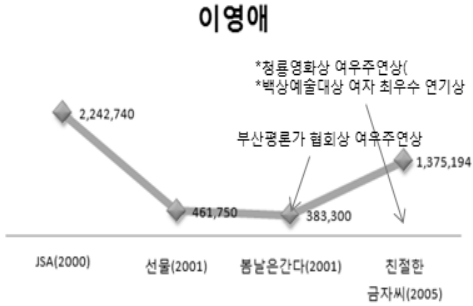


그림 2. 가장 안정적인 관객동원력을 가진 배우 '이영애'의 작품별 관객 동원 수 및 수상경력

표 6. 배우 '장동건'의 작품 별 특징

영화	연출	인정사정	아나	친구	로스트메	해안선	태극기	태풍
등급	연가	불거없다	키스트	친구	모리즈	해안선	휘날리며	태풍
등급	15세	12세	18세	18세	12세	18세	15세	15세
장르	멜로	액션	액션	드라마	SF, 액션	스릴러	전쟁	액션
감독	박대영	이명세	유영식	곽경택	이시명	김기덕	강제규	곽경택
출연 배우	고소영	박중훈, 안성기	정준호, 김상중	유오성	-	-	원 빈 이은주	이정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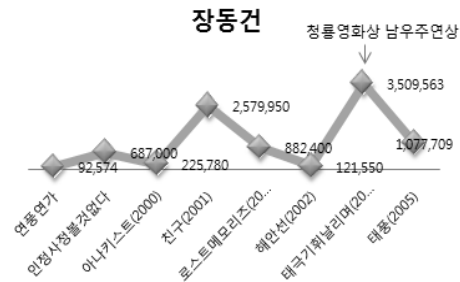


그림 3. 가장 안정적인 관객동원력을 가진 배우 '장동건'의 작품별 관객 동원 수 및 수상경력

결과적으로 앞서 언급한 스타과위가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는 감독 및 배우들은 각각의 작품에서 하위 배우들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객동원을 하면서 자신들의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표 2]에서 스타급 감독 중 여성으로서 이름을 올린 감독은 '이정향' 감독이 유일하다. 이는 아직까지 남성 감독보다 떨어지는 지명도 및 수적인 열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영화산업 초기부터 많은 여성 배우들이 한국영화를 지탱하였지만, 스태프와 감독과

같은 실질적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분야에서 여성의 자리가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10]. 하지만 90년대 대략 500여명에 이르는 여성감독에 의해 영화가 만들어지고 배급되고 상영되면서 몇몇 여성감독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임순례(와이키키 브라더스 2001, 우리생애에 최고의 순간 2007)감독과 같이, 오랜 기간 연출부로 일하다가 자신의 시나리오로 입문하여 평단의 찬사를 받은 이정향(미술관 옆 동물원 1998, 집으로 2002)감독 이외에 이서균(러브러브 1998), 박경희(미소 2003)감독과 최근 김미정(궁녀, 2007), 이경미(미스 홍당무 2008)까지 장편상업영화에서 위와 같은 실력 있는 여성 신인감독이 등장하면서, 한국영화산업의 남녀 간 격차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 연결망 분석 : 중앙성 분석 (Centrality Analysis)

본 장에서는 앞선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 SNA)을 방법론으로 활용하였는데 이는 연대 또는 거래 구조를 행렬 형태(matrix format)의 자료로 입력하여, 연결망의 성격 뿐 아니라 연결망 내 개체들의 속성을 양적 변수로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연결망자체의 성격에 관한 변수들은 개체들이 집합적으로 연결망을 이룬 후 이전과 달리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통찰력을 줄 수 있는 분석법이다. 본 장에서는 앞서 선출한 163인의 스타 감독 및 배우들 사이의 공동 작업 연결망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동일한 영화에 어떤 스타급 감독과 배우가 함께 작업해서 영화를 제작했는가를 측정하였다. 만약 A라는 영화의 감독이 B이고 배우가 C이면 B와 C는 서로 한 번 관계를 맺은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작업의 연결망(co-work network)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만약 B라는 감독이 C라는 배우와 만나 또 다른 영화를 만들었다면 이들은 2회의 관계를 맺은 것으로 간주했다. 그리하여 지난 10년간 상위 20위에 오른 영화의 감독과 주연 급 배우를 매트릭스(matrix)의 열(column)과 행(row)에 서로 다른 행위자로 설정하여 엑셀 파일에 기록했다. 또한 감독과 배우가 같은 영화에서 함께 일했는가 하는 관계맺음의 유무 뿐 아니라 관계를 맺은 빈도까지 표시하여 엑셀 파일로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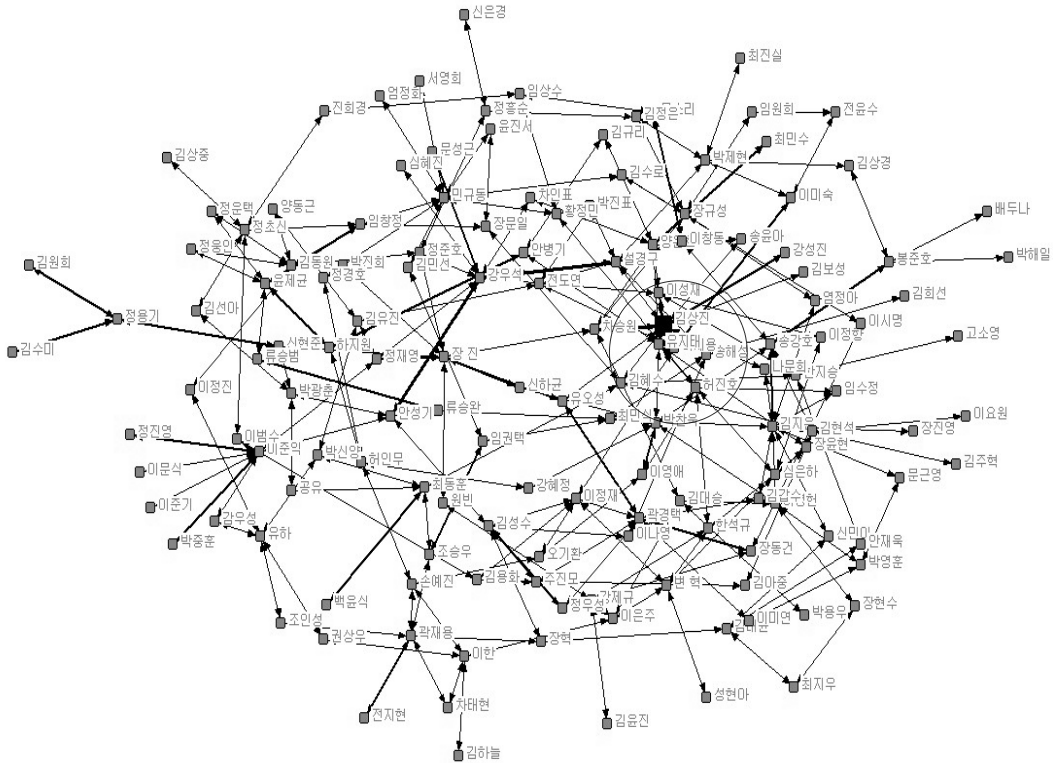


그림 4. 한국 영화 산업의 153인의 스타급 감독 및 배우들의 사회적 연결망

(이는 아래 [그림 4]에서 선의 굵기로 표시되었다). 또한 그 파일을 대표적인 사회 연결망 분석 프로그램인 'UCINET'로 전환하여 각 영화인에 대한 인접 중앙성(Closeness Centrality)¹, 사이중앙성(Betweenness centrality)², 위세 중앙성(eigenvalue centrality)³ 그리

고 연결정도(Degree)⁴ 등을 측정하였다. 그리하여 스타급 감독과 배우와의 이러한 공동작업 연결망 및 중앙성 분석을 통하여, 복잡한 사회 네트워크에서 '누가 중앙에 위치하였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연결망의 중앙은 지속적인 관객동원능력을 갖춘 '실질적인 스타'를 의미한다. 이러한 스타는 국가 간 교역의 연결망에서도 중앙에 놓인 국가가 세계경제에서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듯이, 가장 많은 정보를 신속하게 누리면서 구성원들에게 강력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림 4]와 같은 전체 스타급 감독과 배우 간의 복잡하게 얽힌 관계망을 도출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수치는 아래 [표 7]와 [표 8]에 명시

1 한 점의 전체 중앙성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다른 점들과의 인접성(closeness) 혹은 거리(distances)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향성이 있는 그래프에서는 방향에 따라 내향 인접성(in-Closeness)과 외향 인접성(out-Closeness)으로 구분하여 측정되어지는데, 정도가 작을수록 중심 가깝다.

2 한 연결점이 연결망 내의 다른 점들 '사이에' 위치하는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한 연결점이 연결망 내의 다른 점들 '사이에' 위치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한 연결점이 다른 연결점 사이의 최단거리를 연결하는 선, 즉 최단경로 위에 위치할수록 그 연결점의 사이 중앙성은 높아진다. 즉 사이중앙성은 다른 연결점들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3 연결된 상대방의 중요성에 가중치를 준 것으로, 강자와의 단 하나의 연결이 다른 여러 행위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보다 자신의 영향

력을 증가시킨다는, 위세지수(Prestige Index)로 Eigenvec 값이 높을수록 높은 위세점수를 갖게 된다.

4 한 연결점이 맺고 있는 다른 연결점의 숫자로 정의되는데, 연결정도가 많은 사람 일수록 친구가 많은 사람이나 혹은 마당발로 불린다.

에 놓았다. 먼저 인접중앙성은 직접 연결된 다른 행위자 뿐 아니라 네트워크에서 간접적으로 연결된 행위자들 간의 경로 거리(geodesic distance)를 계산하여 측정한다는 점에서 연결정도와는 차이가 있는데, 인접중앙성에 위치한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으면서 또한 네트워크 내에서 소규모의 특징집단에 치우치지 않는 글로벌 중앙성에 위치하게 되는데 [11], 즉 위의 그림4에서 ‘김상진’ 감독은 외적·내적 인접성(in-out closeness)에서 가장 작은 수를 나타내면서 가장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였다.

이는 그림에서 ‘김원희’, ‘김수미’, ‘신은경’, ‘최진실’ 등이 중앙에서 한참에서 벗어난 모습과 대조를 이룬다. 한편 한 결점의 중앙성을 측정하는 제 3방법인 ‘사이중앙성’ 또한 ‘김상진’ 감독이 약 278로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데, 이는 그가 가장 중앙에 인접하게 되면서 누구나 그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되면서 그는 스타 연결망 안에서 ‘다리’ 역할 또한 맡게 되었다.

표 7. 스타 감독 및 배우의 인접중앙성 사이중앙성

	인접 중앙성	in-Closness	out-Closeness
1	김상진	492.000	492.000
2	차승원	521.000	521.000
3	설경구	527.000	527.000
4	박찬욱	532.000	562.000
5	김혜수	535.000	535.000
6	강우석	536.000	536.000
7	안성기	541.000	541.000
8	김지운	544.000	546.000
9	최민식	545.000	555.000
10	유오성	545.000	545.000
	사이 중앙성	Betweenness	nBetweenness
1	김상진	2786.132	13.161
2	장진	2480.835	11.719
3	강우석	2149.981	10.156
4	김지운	2084.027	9.844
5	안성기	1917.239	9.056
6	설경구	1902.16	8.985
7	김혜수	1871.202	8.839
8	차승원	1748.644	8.26
9	민규동	1658.332	7.833
10	송강호	1616.253	7.635

표 8. 스타 감독 및 배우의 위세중앙성·연결정도

	위세 중앙성	Eigenvec	nEigenvec
1	강우석	0.468	66.235
2	김상진	0.379	53.57
3	양윤호	0.145	20.533
4	이준익	0.095	13.408
5	박찬욱	0.076	10.712
6	송해성	0.075	10.657
7	김성수	0.068	9.598
8	김지운	0.063	8.895
9	곽경택	0.059	8.399
10	허진호	0.034	4.75
	연결정도	Degree	NrmDegree
1	김상진	14	3.196
2	강우석	13	2.968
3	김지운	11	2.511
4	장진	10	2.283
5	곽경택	9	2.055
6	이준익	9	2.055
7	설경구	9	2.055
8	박찬욱	9	2.055
9	민규동	8	1.826
10	양윤호	8	1.826

한편 ‘위세 중앙성’은 자신의 연결정도 중앙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영향력과 자신과 연결된 타행위자의 영향력을 합하여 결정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도 ‘김상진’ 감독은 중앙에 위치하면서 중앙에 놓인 영화인들과 연결이 되면서 ‘강우석’ 감독에 이어 2번째 높은 위세 점수를 갖게 되었다. 이는 ‘김상진’ 감독이 스타 파워 상위 20위안에 든 차승원(3작품), 이성재(2작품), 설경구, 유지태 그리고 이밖에 강성진(2작품), 김혜수, 유오성, 송윤아, 김보성, 그리고 나문희 등 총 10명의 영향력 있는 스타급 배우와 14번이라는 가장 많은 연결정도 (Degree) 가지면서 자신의 위세를 증가 시켰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김상진 감독이 데뷔작인 ‘돈을 갖고 튀어라 (1995) 이래 계속 ‘코미디 영화’만을 연출한 것도 한 이유가 된다(두 번째 작품인 ‘깡패수업은 예외). 김상진 감독에게 있어 코미디는 하나의 장르이기 이전에 완전한 자신만의 ‘스타일’로 존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웃으며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는

매우 단순한 목적을 두게 하였다. 그는 그리고 이러한 점은 상업영화를 오락 매체 혹은 여가로서 '즐겁게' 즐기고자하는 다수의 대중들의 입맛(Taste)과 맞물리게 되면서, 영화산업의 불확실(Uncertainty)성을 효과적으로 줄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김상진 표 코미디' 스타일은 하나의 특색 있는 코미디 시리즈물(Serial)로 가치가 부여되면서, 성공에 대한 연속성(continuity) 또한 가지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이는 엘버트(S. Albert)가 스타의 긍정적 효과에 대하여 논한 것 중 '특정 스타가 특정 스타일의 영화에 반복하여 출현하고 그 영화들이 성공하게 된다면 그 스타는 유사한 형식의 영화 흥행을 보증하는 것으로 파악'한 것[12]과 같은 맥락에서, 김상진 감독 또한 스타 감독으로서 특정 스타일 즉 '코미디'라는 장르가 여러 번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그가 '코미디' 장르에서만은 어느 정도의 영화흥행을 보증한다는 시그널 효과(signaling effect)로서 신뢰감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진 김상진 감독의 안정적인 관객동원능력은 '관객' 뿐만 아니라 더욱 더 많은 '스타급 배우'를 모여들게 만들면서, 자신의 영향력(Power)을 더욱 더 굳건히 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현재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감독으로서의 인지도효과는 '봉준호'나 '박찬욱' 감독이 훨씬 강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본 연구는 1998년에서 2007년까지 10년이라는 장기적 기간 동안의 '관객동원'과 '사회적 연결망'의 '안정성'을 보다 우선순위로 여긴 결론이다.

III 맺음말

본 연구는 먼저 1998년에서 2007년까지 10년간 상영되어진 한국영화 약 700여개 작품 중 각각의 년도마다 상위 20위 안에 2번 이상 이름을 올리면서, 가장 많은 스타파워를 기록한 '스타급 감독과 주연 배우'를 선정하고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 SNA) 방법론을 활용하여 이들이 영화산업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감독 50인(남자 49인, 여자 1인), 배우 103인(남자 56인, 여자 47인) 총 153인을 선정하였으며, 이들 중 가장 높은 스타파워를 가진 감독으로는

'김상진' 감독이, 배우로는 '이영애', '장동건'이 각각 선출되었다. 이들은 평균 6-12개의 작품들을 연출하고 주연 급으로 출연하며 5-80 만 명의 안정된 관객 동원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네트워크 분석 결과 '김상진' 감독이 외적·내적 인접성(in-out closeness) 부분에서 가장 작은 수를 나타내면서 가장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사이 중앙성' 또한 '김상진' 감독이 가장 높은 값을 가지면서 152인의 스타 연결망 안에서 '마당발' 역할 또한 맡고 있었다. 또한 스타 파워 상위 20위안에 이름을 올린 차승원(3작품), 이성재(2작품), 설경구, 유지태 그리고 이밖에도 강성진(2작품), 김혜수, 유오성, 송윤아, 김보성, 그리고 나문희 등 총 10명의 안정적 스타파워를 가진 배우와 연결되면서 높은 위계중앙성 또한 가졌다. 김상진' 감독은 '많은 대중들이 공감하고 좋아할 만한 코미디 영화'를 자신만의 스타일로서 확실히 정하고 연출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관객동원을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영화 흥행의 안정성은 '좋은 배우'들 또한 끌어들이는 매력으로서 작용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최근 한국영화 산업의 외형적 스타파워가 무조건 적인 흥행의 보증수표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관객동원력 및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면서, '상업 영화감독' 중 가장 불확실성(Uncertainty)을 억제 시킨 '김상진' 감독의 의미는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본 연구는 지나치게 '흥행성'을 기준으로 '스타 감독 및 배우'를 선별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최근 안정아의 한국영화산업에서의 스타의 역할과 가치 연구에 의하면, 스타파워가 높은 영화일수록 고려집합에 포함될 확률이 높으나, 개봉 후 영화를 본 사람들의 경험적 정보(리뷰)가 주어지면 스타보다는 정보를 더 의존하는 성향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14].

이처럼 이후에 '관객 동원 능력' 뿐만 아닌 '타인에 의한 정보 영향력 여부', '영화 개봉 전과 이후에 영향력을 미친 대상 및 매체' 그리고 '영화제 수상 여부 및 해외 인지도' 등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고려가 더 진척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사회연결망 방법론이 스타들 간의 연결망만을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각 주체의 시계열적 분석까지 분석된다면 스타 파워의 측정은 더욱 정확해질 것이다.

참고 문헌

[1] 김호석, *문화산업의 스타시스템에 관한 연구*, p.220, 1997.
 [2] W. D. Walls, "Modeling Movie Success When 'Nobody Knows Anything: conditional Stable-Distribution Analysis Of Film Returns,"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Vol.29, No.3, p.1, 2005.
 [3] 김형석, *무비워크*, 중앙 엔터테인먼트앤드스포츠, 2001.
 [4] C. Darlene, "Two-Part Share Contracts, Risk, and the Life Cycle of Stars: Some Empirical Results from Motion Picture Contracts,"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Vol.28, No.1, pp.37-56, 2004.
 [5] W. T. Wallace1, S. Alan, and M. B. Holbrook, "The Role of Actors and Actress in the Success of Films: How much is a Movie Star Worth?"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Vol.17, No.1, pp.1-27. 1993.
 [6] 김휴중, "한국영화스타의 스타파워 분석", *문화경 제연구*, 제1권, 제1호, 1998.
 [7] J. F. Padgett and C. K. Ansell, "Robust Action and the Rise of the Medici,"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98, No.6, pp.1262-1265, 1993
 [8] E. W. Zuckerman, T. Y. Kim, U. Kalinda, and J. V. Rittmann, "Robust Identities or Nonentities?: Typecasting in the Feature Film Labor Marke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108, No.5, pp.1018-1070, 2003.
 [9] *씨네21*, (주)씨네21, 2000-2007(5).
 [10] 주진숙, *여성영화인 사진*, 소도, 2001.
 [11] Z. Barbara and H. Valentina, "Reliability of

measures of centrality and prominence," *Social Networks*, Vol.27, No.1, pp.74-88, 2005.

[12] S. Albert, "Movie Stars and the Distribution of Financially Successful Films in the Motion Picture Industry,"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Vol.22, No.4, pp.249-270, 1998.
 [14] 안성아, "스타배우의 영화학적 자리매김: 한국영화에서 스타의 신호역할과 재무적 가치", *영화연구*, 제34권, 단일호, 2007.

저자 소개

류 설 리(Seol-Ri Ry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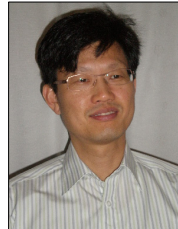
준회원



▪ 2008년 ~ 현재 : 강원대학교 영상문화학과 석사과정 재학
 <관심분야> : 문화산업, 문화도시, 스타파워

유 승 호(Seoung-Ho Ryu)

정회원



▪ 1996년 ~ 1998년 : 한국전산원 선임연구원
 ▪ 1999년 ~ 2001년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문화산업팀장
 ▪ 2001년 ~ 2004년 : 한국계임산업진흥원 산업진흥본부장
 ▪ 2003년 ~ 2004년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Visiting Scholar
 ▪ 2004년 ~ 2006년 : 누리(NURD)문화콘텐츠 인력양성사업단장
 ▪ 2005년~현재 :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화기술대학원 겸직교수
 ▪ 2004년 ~ 현재 : 강원대학교 영상문화학과 교수
 <관심분야> : 문화산업, HCI, 컴퓨터게임, 문화도시